



21세기의 카메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본 자료는 일본 월간 「카메라 맨」 96년 12월호에 게재된 '21세기의 카메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의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 게재한 것이니 관심있는 애독자들의 많은 참고바란다.

-편집자 주-

1. 35mm SLR 과 APS SLR 카메라 -APS SLR의 출현에 의한 35mm SLR의 변화와 APS SLR의 잠재성

APS는 발표 전의 큰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필름의 콤팩트화에 따른 카메라와 렌즈의 소형화, 취급이 간단하고 실패가 적은 카세트 타입의 필름, 필름면의 자기정보를 읽어 현상처리단계에서 질 좋은 사진을 얻는 등, 지금까지 35mm 필름의 결점을 커버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APS 현상소의 대응이 아직 APS의 신기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신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카메라처럼 새로운 차원의 화상처리시스템과는 연결이 안되는 종래의 은

염 사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APS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미발전 상황이 계속되어, 이대로 가다보면 결국에는 1회용 APS 카메라만 남게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렌즈교환식 APS SLR 카메라는 미놀타의 '백티스 S-1' 과 캐논의 'IX E' 그리고 니콘의 '프로네아 6001' 의 3기종 뿐으로 카메라 자체만을 보면 어떤 기종도 구별하기 어려운 고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메라로서의 완성도도 매우 높은 SLR 카메라라고 생각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APS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참신한 기능과 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굳이 APS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이 정도라면 지금

까지의 35mm 카메라로서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APS에 사용가능한 필름이 컬러-네가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APS가 출현하여 만에 하나 크게 발전한다해도 지금까지의 35mm SLR카메라에 끼치는 영향은 기술적 구조적으로도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2. 35mm콤팩트 카메라와 APS 콤팩트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는 APS로 전면 이행할 것인가?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는 35mm 카메라와 APS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35mm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비교하는 편이 장래를 내다보는 비교방



해의 리포트

법이 될 것이다. 특히, 콤팩트 카메라에서는 기능이나 크기 면에서도 35mm 필름용과 APS 필름용과의 구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35mm 콤팩트 카메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는 느낌이 든다.

‘소형, 고배율 줌 렌즈 내장 콤팩트’ 인가 ‘고성능 단초점 고급 콤팩트’ 인가의 양극단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저배율의 ‘2배 줌 콤팩트 카메라’ 나 엮가형의 ‘단초점 콤팩트 카메라’ 등에서 주목할 만한 기종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1~2년 동안은 단지, 디자인을 조금 변경시키는 정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기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보아도 콤팩트 카메라의 벽을 느낄 수 있다.

소형 경량화와 고배율 줌과의 싸움에서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소재나 아이디어가 발견, 개발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수많은 콤팩트 카메라는 도태되고, 렌즈의 높은 묘사능력과 간편하면서도 고성능의 촬영기능에 역점을 둔 ‘고급 콤팩트 카메라’ 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소형으로 가볍고, 누구나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멀거나 가까운 거리의 것도 실패없

이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콤팩트 카메라의 매력과 특징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되고 있다.

‘35mm 콤팩트 카메라’가 ‘APS 카메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른 속도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면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디지털 카메라의 향후를 접쳐 본다.

-디지털 카메라는 향후, 보도관계 이외의 일반 사용자에게도 침투해 나갈 것인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매우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

디지털 영상과 은염사진 영상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시대가 꼭 올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침투하여 촬영한 화상을 즉시 체크하여 감상한다든지, 화상을 모니터로 재생하여 불필요한 장면은 소거하고 새로운 장면을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화상을 PC에 입력하여 마음대로 가공, 편집, 보존할 수 있으며 소형의 값싼 프린터가 출현하면 (시간이 문제지만) 서비스 사이즈 프린트에도 뒤지지 않는 고품질의 사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등등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콤팩트 카메라를 능가하는 가능성과 장래성

이 산처럼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다.

디지털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할 수 있는 CCD는 수년 후에는 지금의 몇배 이상으로 고성능화, 저가격화 될 것이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CCD가 아무리 고성능화 될지라도 은염필름의 묘사성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디지털 화상이라면 (다소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획기적인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고안되어, 고성능 CCD의 출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고화질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촬영시 소프트웨어에서 화상을 보완하는 것으로 촬영렌즈의 수차와 묘사능력을 보정, 향상시켜 비약적으로 고성능의 묘사력을 가진 화상 기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러, 컴퓨터에 화상을 집어넣어 가공하지 않더라도 촬영 카메라 안에서 동시에 자동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한 화상기록장치로써 디지털 카메라는 확실히, 폭넓게 침투할 제품이라고 생각된다.